터벅터벅 걷는 '무등산 옛길' 제주도 '올레길'보다 정겨워

■ 미리 가 본 원효사~서석대 '2구간'

도심 속 산길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무등산 옛길 1구간(산수동~원효사, 7.75㎞)에 이어 오는 10일 옛길 2구간(원효사~서석대, 4.12㎞)이 일반에게 개방된다. 〈관련기사 16면〉

2구간은 자연생태나 역사유적 등을 토대로 크게 원효사~제철유적, 제철유적~치마바위, 치마바위~군사작전도로, 군사작전도로~서석대 및 입석대 등 4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도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간직하고 있는 이 곳에서는 무등산의 숨겨진 속살과 원시 비경을 만날 수 있다.

광주일보는 지난 6일 무등산관리사무소 소속 문화관광해설사 이애심·원근수씨와 함께 옛길 2구간을 미리 둘러봤다.

◇**원효사~제철유적**=원효사를 오르는 언덕에 위치한 초소 옆 옛길 2구간 입구를 지나 10여 분을 걸으면,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숲이 기다랗게 펼쳐진다. 피톤치드를 내뿜는 삼나무, 편백나무, 참나무로 가득한 숲속에 들어선 순간 상쾌함이 느껴진다. 놀란 다람쥐들이 경계하며 소리치고, 몇몇은 바로 눈앞에서 반대편으로 달아난다. 경쟁에서 도태된 나무들이 자연 상태 그대로 쓰러져 있는 덤불은 곤충이나 새, 다람쥐 등의 식량창고이자 쉼터가 되고 있다.

숲을 빠져나와 5분 여를 더 가면 금곡동 제철유적지가 있다. 유적지 곳곳에 당시 무기 등을 제작하면서 나온 쇳덩어리를 볼 수 있으며, 바로 옆에 흐르고 있는 계곡의 물과 사철, 나무들이 수백 년 전 질 높은 무기를 만들어냈다. 제철유적을 조금 벗어나면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이름이 새겨진 커다란 바위를 볼 수 있다.

◇**제철유적~치마바위**=원효사에서 2.3㎞ 떨어진 지점에서 치마바위(너럭바위)와 만난다. 10여 명이 단체로 앉아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옆으로는 맑은 계곡이 있다. 졸참나무 군락지와 곳곳에 희귀한 노각나무, 사람주나무 등이 우거져 있으며, 쇠딱따구리, 꿩, 개구리, 도룡뇽 등 다양한 생물들을 접하게 된다. 바지가랑이에 스치는 산대나무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경쾌하다. 조금 더 오르면 비목나무 잎들이 붉게 물들며, 길 위에 떨어져 마치 수를 놓은 듯한 '장관'과 마주한다. 길 바닥을 자세히 보면 간혹 두더지 흔적도 볼 수 있다.

◇**치마바위~군사작전도로**=치마바위를 지나 20여 분을 걸으면, 지난 1960년대 군부대가 위치했던 넓은 공터가 있으며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는, 사색하는 장소로 손색이 없다. 조선시대 사약을 만드는 재료였던 천남성을 비롯 좁쌀풀, 쑥부쟁이, 구절초 등 야생초와 산딸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산딸나무 열매나 비목나무 잎을 맛보는 것은 색다른 즐거움이다.

◇**군사작전도로~서석대·입석대**=군사작전도로에서 서석대까지는 500m, 입석대까지는 1㎞ 거리다. 옛길 2구간 중 가장 가파르다. 과거 일반인들은 오를 수 없을 정도로 급경사였으나 옛길을 조성하면서 자연석이나 썩은 나무 등으로 계단을 만들어 지금은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 서석대 전망대에 오르면 서석대와 광주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으며, 입석대에선 소래봉과 백마능선(억새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이 백마의 갈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을 볼 수 있다. 산부추와 보라색의 용담꽃, 취나물, 억새풀 등이 화려함을 자랑한다.

지난 2001년부터 무등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이애심씨는 "무등산 옛길은 등산이라는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색하고 공유하는 수평적인 개념으로 조성된 곳"이라며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찾아 서로 이해하고, 천천히 무등산을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는 10일 무등산 옛길 2구간(원효사~서석대)의 개방을 앞두고, 무등산관리사무소 소속 직원과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구간 내 시설물과 자연생태를 점검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영재교육 예술영역 확대

예술영재교육원 내달 개원

광주시교육청이 과학과 수학 등에 국한됐던 영재교육을 음악과 미술 등 예술영역으로 확대한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음악과 미술 등 예술적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육성하는 예술영재교육원을 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원 등 주로 사교육에 의존해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음악, 미술 등 예술교육이 공교육 체제로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첫 시도다.

오는 9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으며, 접수방법은 인터넷(gecs.gen.go.kr)이나 우편(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과 예술영재교육원 담당자 앞)으로 가능하다. 교육비와 시험 전형료 등은 전액 무료다.

/박진표기자 luc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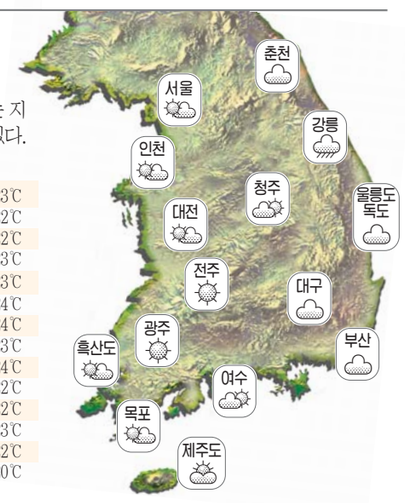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32분 해짐 18시 07분 달뜸 20시 28분 달짐 10시 36분

한로(寒露)

곳에따라 구름이 많이 끼는 지역도 있겠으나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조금	13/23℃
목 포	맑은뒤 흐림	13/22℃
여 수	흐린뒤 맑음	17/22℃
완 도	맑은뒤 흐림	14/23℃
구 례	구름조금	10/23℃
해 남	맑은뒤 흐림	12/24℃
장 흥	맑은뒤 흐림	12/24℃
고 흥	흐린뒤 맑음	15/23℃
순 천	흐린뒤 맑음	13/24℃
영 광	구름 조금	11/22℃
진 도	맑은뒤 흐림	14/22℃
전 주	맑음	11/23℃
남 원	흐린뒤 맑음	12/22℃
흑산도	맑은뒤 흐림	17/2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먼바다	북~북동	1.0~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3.0m
먼바다	북~북동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3.0m
먼바다	북~북동	2.0~4.0m

	밀물	썰물
목포	04:17 17:00	09:24 22:00
여수	11:24 23:16	04:46 17:2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날 씨						
최저/최고	12/22	11/22	11/23	12/23	12/22	11/22

'전국시민운동가대회' 다산수련원서 열린다

오늘부터 2박3일

시민운동가들 간 교류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시민운동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2009 전국시민운동가대회'가 8일 강진군 다산수련원에서 열린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선 향후 시민운동 방향과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전국시민운동가대회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과 개혁사상의 집성지인 다산초당을 비롯해 민중불교운동의 시초지 백련사, 문익환 목사의 통일정신을 계승하는 늦봄학교 등 강진군 전역에서 진행된다.

'시민운동 무엇을 내려놓고 들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진단과 시민운동의 대응', '2010 지방선거와 시민운동의 정치 기획' 등 다양한 토론과 함께 신영복 교수의 '시민운동의 성찰과 새로운 모색', 박원순 변호사의 '희망찾기'라는 특강이 준비됐다. 또한 밤길 철학산책과 강진만 자전거 기행, 강진 문화유적 답사 등의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